

# 세계화합 · 조화 · 존중 자신의 마음에서

## 중국 항저우서 열린 '제1차 세계불교포럼' 현장

"세계의 화합과 조화는 각자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자."

피부색깔과 언어는 다르지만 이구동성(異口同聲)이었다. 한국, 중국, 대만 등 전 세계 불교도 1천여 명이 모여 세계화합을 위해 각자 자신의 마음부터 다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1949년 중국 공산당 정권 수립 이후 최초의 국제종교행사인 '제1차 세계불교포럼'.

이 행사는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 인민대회당과 저우산(舟山)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의 목적은 "세계 각국의 불자들을 위해 높은 수준의 강연을 제공하고 중국 불자들과 세계의 불자들이 대화·교환·협력력을 통해 지혜를 나누는 것"이라고 주최 측은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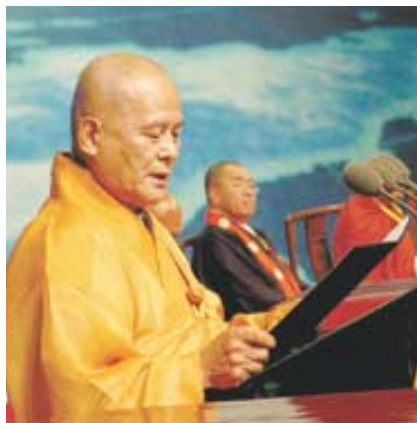
중국은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의해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공개적인 국제종교 행사는 사실상 금지하는 등 종교 활동의 제약이 은근히 심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향후 중국정부의 종교 정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종교 행사로서는 이례적으로 중국은 4월 13일 불교포럼 개최식 전 과정을 국영 중앙방송(CCTV)을 통해 생중계했다.

'세계화합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자'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13일 오전 8시 30분 중국 불교협회 스님 1백여 명이 연단에 올라 예불의식을 봉행하는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장엄하게 문을 열었다.

등전화(董建華) 중국 국가주석협상회의 부주석(前 홍콩 특별행정자치구 장관)은 축사를 통해 "세계에는 서로 다른 문화나 민족이 많이 존재하지만 인간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며 "이 자리에 모인 불교도들이 주축이 돼 날로 갈등이 심각해지는 지구촌의 평화공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바로 이 시간부터 시작하자"고 역설했다.

첫날의 하이라이트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겸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을 비롯해, 라오스 불교도협회 케오봉과 쯩정 시사바스 스님, 사쿠리 코오지 일본 대분산 중산사 원로 스님, 중국정부가 임명된 티베트 판첸라마, 다쇼상제왕초 부탄왕국정부문화장관, 라오청 세계불교승가회 회장 스님, 마하 수메다 텡푸 캄보디아 불교협회 승왕, 마하테로 스리랑카



첫 기조연설자로 나선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개막식 첫날인 4월 13일 세계 34개국에서 온 1천여명의 불교도들이 각국 대표들의 기조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 중국의 첫 국제종교행사, 1천여 불자들 지혜의場 펼쳐 지관 스님 기조 연설 통해 '생명존중 상생발전' 당부 대회장 밖도 친교열기 후끈... 포용·명함 건네며 인사 15일 저우산서 연등행사와 평화기도 개최 후 일정 마쳐

불교협회장 스님, 성운 대만 불광산사 종정 등 세계 불교지도자 9명이 발표하는 기조연설. 연사들에게 발표 제한 시간인 8분을 정해두고 만일 시간을 넘기게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져 객석에서 간간히 폭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지관 스님은 기조연설을 통해 "앞으로 다가 올 미래에 전 세계 불교도들은 생명존중의 실천, 정신문화의 발전, 윤리와 도덕이 살아 있는 사회 건설, 상생발전하려는 지혜, 세계평화와 화합 등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세계 각국의 불교도들은 세계평화와 중생제도에 앞장서기를 발원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온 대만의 성운 스님도 "이 행사는 불교가 전 세계의 화합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심도있게 토론하는 유익한 자리"라며 "이 자리에 모인 1천여 불교도들에게 딱딱보다는 유연성 있는 관리, 자기반성이 뒤따르는 자각적인 관리, 인간 감동을 통한 관리, 불법에 의지하는 관리 등 네 가지 관리가 필요

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세계불교포럼은 중국에서의 첫 종교 행사라는 것 외에도 주목되는 점이 있었다.

중국 정부에게 불교가 서방종교에 대응하는 복안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서방종교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불교는 중국 정부에게 더없이 좋은 대안일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시장경제의 개방으로 야기된 계층간, 지역간 갈등을 치유하는 수단으로 중국에서 신도 수가 가장 많은 불교를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대회가 자못 흥미로운 것은 포럼 형식을 띠고 있지만 대회장 밖에서는 불교를 통한 친교와 우의를 다지려는 불교지도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한 것이다.

불교지도자들은 각 국가의 종교대사처럼 안면이 있는 스님들에게는 악수나 포옹을, 처음 보는 이들에게는 명함을 건네며 친목을 돈독히 다졌다.

열소한 중국 종교국 국장을 비롯해 중국불교협회 상임부회장 성취 스님, 서안 법문사 방장 학성 스님, 저장성 불교협회장 계인 스님, 광둥성 불교협회장 명생 스님 등도 개막식 날 모든 행사가 끝난 뒤 한국 측 포럼 참가단이 머무는 월드무역호텔을 방문해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성취 스님은 "이번 불교포럼은 11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한중일 불교우호대회를 거쳐오면서 홍콩과 마카오, 대만 등지의 중화권 스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특히 이 대회의 취지를 한국불교 측에 가장 먼저 알렸고 또한 다른 여러 나라보다도 한국불교 측에서 큰 지지를 보내왔기 때문에 고마움의 표시로 기조발표 때 지관 스님을 가장 먼저 순서에 배정했다"고 우호적인 감정을 피력했다. 이에 지관 스님도 팔만대장경판 중 <반야심경>을 새긴 경판모형을 기념으로 선물하기도 했다.

포럼 휴식시간에는 북도에서 마추친 심상진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과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이 서로의 인부를 뵈며 반가워하기도 했다. "불교문화 올림픽"이라 불리는 이번 행사는 4월 13~14일 항저우 인민대회당의 개막식과 분과토론, 환원만찬, 불교종합예술의 밤 행사에 이어 15일 저우산에서는 연등행사와 세계평화기도 행사를 개최했으며, 16일 막을 내렸다. 행사가 끝난 뒤 각국으로 돌아가는 1천여 불교도들의 결망엔 화합으로 굳게 다져진 기쁨과 희망이 한가득 들어있었다.

글·사진/중국 항저우=김주일 기자



4월 13일 개막식에 앞서 중국불교협회 소속 1백여 스님들이 예불의식을 하고 있다.



개막식날 일정이 끝난 뒤 한국 측 포럼 참가단인 숙소를 인사차 방문한 조선불교도연맹 심상진 부위원장(오른쪽)에게 지관 스님이 해인사 범종을 축소해 만든 기념품을 선물하고 있다.

불교 최초 실시간 온라인 광고 사이트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인터넷 세상, 이제 불교계도 모든 광고와 정보를 인터넷으로 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해야 하는 사찰관련 홍보나 행사, 법회안내, 그리고 급하게 구하는 구인구직자리... 아직도 신문이 나오는 날짜만 기다리며 광고를 하십니까? 이제 애드부다피어를 통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광고의 본질적인 효과를 누리보시기 바랍니다!!

### 빠른 속도로 실시간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간지인 불교계의 신문에 광고를 하려면 최소 1주에서 많게는 2주 이상이나 광고접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홍보기간이 중요한 법회나, 행사 등과 관련한 광고의 경우에는 원하던만큼의 광고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애드부다피아는 실시간으로 바로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급박하거나 홍보기간이 중요한 광고에서 최대효과를 약속합니다.

### 광고 신청도 빠르고 편리합니다!

일일이 전화나 팩스로 광고를 신청해야 하고 또 광고분만이 나오면 다시 확인,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애드부다피아는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또 바로 온라인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 부다피아, 부다뉴스가 함께합니다.

국내 최대의 불교포털사이트 부다피아, 국내 최대의 불교 인터넷 뉴스 부다뉴스와 함께하는 부다피아는 이미 불교계에선 국내 최대의 방문수를 자랑합니다. 애드부다피아는 이러한 부다피아, 부다뉴스와 상호 연계하여 광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최다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어 가장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광고와 함께 풍부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으로 인하여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없었던 지면광고와는 다르게 애드부다피아에서는 표현하고 싶은 광고의 모든 컨셉을 담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물론, 보다 역동적인 동영상 서비스로도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수정, 보완이 가능한 편리한 광고 시스템입니다.

